**삼상1101 Note**

**야베스길르앗, 그리고 이전의 암몬인의 1차 침략**

**◆야베스길르앗**

삿2108. 그리고 그들이 말하니라, 미스바에로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않은 어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있는가? 그리고 보라, 야베스길르앗으로부터 아무도 진영에로, 집회에로 오지 않았느니라,

삿2114. 이에 베냐민이 그때에 다시 오니라, 그리고 그들이 야베스길르앗의 부인들 중에서 살려두었던 아내들을 그들이 저들에게 주니라,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저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마짜:(은혜를)입다,얻다,찾다,만나다,발견하다,적발하다,고난을 당하다,앞에 나오다,나타나다,존재하다,소유하다,획득하다,발생하다,제시하다,손에 가져오다,가지다,가능하다,붙잡다,가져오다,넘겨주다.준비된,충족한] 못하였느니라,

**◆이전의 암몬인의 침략 경력**

삿1101. 한데, 길르앗인 입다(이프타흐:그가 열 것이다,한 이스라엘인 입다,팔레스틴의 한 장소 입다)는 용맹의 세력있는 사람이었느니라, 그는 한 여자(창기)[이솨,잇솨: 여자,각각의,모든,여성,많은,아무도,~아닌,한(여자),~함께,아내,부인]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리고 길르앗이 입다를 보니라,

삿1104.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암몬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전쟁을 일으키니라,

삿1109.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니라, 만일 암몬 자녀들과 싸우기 위해, 너희가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으로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로 되랴?

삿1113. 그리고 암몬 자녀들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에, 그들이 아르논강으로부터 바로 얍복강까지, 또 요단강까지 내 땅을 취해갔음이라(라카흐:취하다,받아들이다,데리고 오다,사다,빼낸,가져오다,얻다,접다,많은,썩이다,두다,받다,지정해 두다,잡다,보내다,빼앗다,탈취하다,사용하다), 이제 그러므로 그들의 땅들을 다시 평화적으로 복귀시키라,

삿1130. 그리고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하니라, 만일 당신께서 암몬의 자녀들을 실패없이 내 손들로 넘겨주시면,

삿1131. 그 경우에는 이것으로 있게 할 것이니이다 곧, 내가 암몬 자녀들로부터 평온 중에 돌아가는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의 문에서 나오는 무엇이든지, 분명코 여호와의 것이니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번제물[올라:계단,오르는,(연기로 올라가는)번제,상승,번제 희생,위로 올라가다]을 위하여 올릴 것이니이다,

삿1133. 그리고 그가 아로엘로부터, 당신이 바로 민닛에로 가기까지, 바로 이십의 성(城)들과, 포도원들의 평원까지 그들을 매우 큰 살육으로써 치니라, 그와같이 암몬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제압되니라